

# 피해자들을 위한 공감

-원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를 읽고 나눈 대화

2416서유현 / 문창고등학교 [seo335800@gmail.com](mailto:seo335800@gmail.com)

## 서론

한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은 그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던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학살의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순이 삼촌'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서서히 읽으면서 나의 책을 읽는 태도가 서서히 바뀌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며 모둠원과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 본론

찬일: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야? 나는 그 30년 전에 있었던 비극이 되게 슬프지만 그게 나중에 총알처럼 날아와서 30년의 그런 유보탄 데어서 나중에 꽃혀서 결국에는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될 듯 하지만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넘어서도 사람에게 아픔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혹은 어떤 범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그러한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던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어. 현명이는 어떻게 생각해?

찬일:유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유현:책 내용 안에서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총으로 죽였잖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 할까?이런 생각이 들었어.

찬일:승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승빈:나는 학살하는 장면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 그 군인 당사자들도 많이 죽었고 그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섬뜩해.

찬일:현명이는 어떻게 생각해?

현명:나도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인상이 깊은거 같아.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상상도 하기 싫고 너무 끔찍한거 같아가지고 나는 이 내용이 인상이 깊었어.

## <우리가 실천할수있는게 무엇인가?>

찬알:현명이는 어떻게 생각해?

현명:일단 나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이 사건을 널리 알릴거 같아. 널리 알려서 이 사건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관심 좀 가져달라라고 나는 말할거 같아.

찬알:유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유현:나는 우리 학교에서 한것처럼 캠페인을 한다던가,달리기를 해서 후원을 한다던가 나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

찬알:승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승빈:나는 우리가 수학 여행으로 제주도를 가서 추모도 하고,죽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또한 알려지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한번 쯤 또 제주도로 여행가면은 이런 곳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줄거 같아.

찬알:내 생각에는 현명이의 방법도 되게 좋은거 같아. 이런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비석이나 추모하는데나 기념관 같은데를 우리는 가봤지만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데 있는것조차도 모를거 같아 그래서 나도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한테서 널리 알릴거 같아.

## <만약 우리가 생존자였다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찬알:현명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현명:내 생각에는 내가 만약 생존자였다면 그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했을거 같아. 누구라도 나쁜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거 같아. 만약 나쁜 기억들이 있다면 나는 그 기억을 잊고 행복한 기억만 생각을 할거같아.

찬알:유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유현:나는 쉽지는 않을거 같아. 왜냐하면 그 그 아픈 기억을 잊기에는 쉽지는 않을거 같은데 내가 만약 생존자였다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그 아픈 기억을 잊어보려고 어떻게든 나는 노력을 했을거 같아

찬일:이 질문에 승빈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승빈:내가 만약 그 사건에 생존자였다면 이 아픈 기억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아픈 기억을 이야기 함으로써 그나마 이 아픈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해줄거 같아.

찬일:내 생각에는 너네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나도 만약 이 사건의 생존자였다면 희생 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아픔을 치유를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더 새길 것 같다는 내 생각이야

### <우리가 만약 제주 4.3사건 당시에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현명:내가 만약 그 사건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든 멈출려고 했을거 같아. 계속 가만히 있으면 사망자가 더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끝낼려고 했을거 같아.

유현: 아니. 나는 다른 생각이야.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사람이었다면 사람과 이웃을 먼저 지킬려고 했을거 같아. 사람은 목숨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먼저 그래서 나는 가족들,이웃분들부터 지킬거 같아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서 이 만행을 알리는데에 신경을 썼을것 같아

찬일:그런 방법도 있을수 있겠구나. 가족,이웃들도 중요하지. 현명이랑 또 다른 생각이구나 그럼 승빈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빈:내 생각에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거 같아. 그 희망을 잃지 않음으로써 희생자들을 기억 하고 그 상처를 극복 함으로써 서로서를 의지를 했을거 같아

찬일:내 생각에는 희생 된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힘쓰고 진실을 알리는데에 노력을 했을거 같아. 앞에서 현명이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진실을 널리 알렸을거 같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거 같아.

### 결론

지금까지 <순이 삼촌>을 읽고 나눈 모듬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4.3 사건의 비극과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다양한로 살펴보았다. 우리 모듬은 책 속

학살 장면의 끔찍함에 함께 슬픔을 느꼈으며, 3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았다.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는 의견부터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이웃을 지키며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비극을 마주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서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슷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토론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불행을 들추기 위함이 아니다. 무관심 속에 잊혀가는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학교 캠페인이나 추모 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문학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고 용기있는 실천들이 사회를 이끌어 갈거라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마친다.